화가 3인이 탐구한 이 세상은 '점점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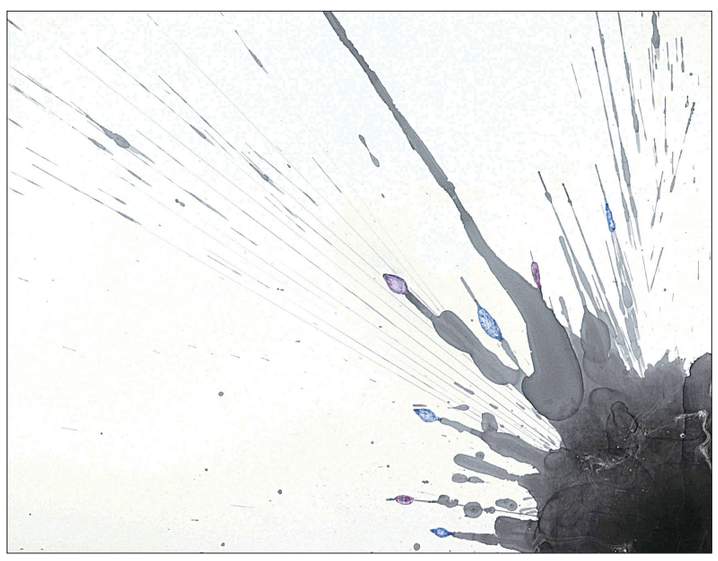
〈點點重重〉

김태종 박경귀 지원진 3인전 '점점중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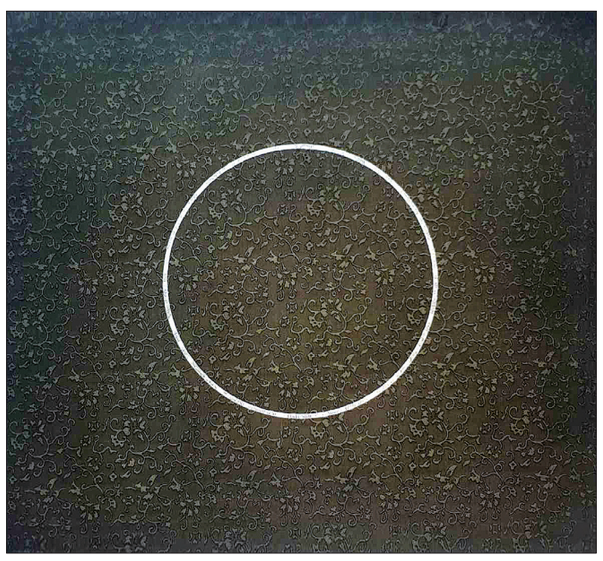
선아트스페이스 2월 4일부터 14일까지

우주 · 인간 · 자연의 '관계' 화두로 모여
6개월 토론 후 주제도출 각자 작품으로
양자물리학 불교사상 등 그림에 녹여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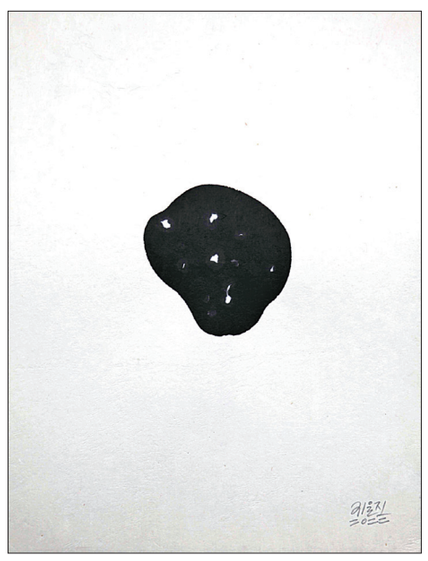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김태종–One for all, All for one_61x49cm 혼합매체 2022



박경귀–세상과 하나되어 ('세상과 나' 연작) 52x45cm 천위에 분채



지원진–침묵의 소리 ('돌멩이' 연작) 48.5x64.5cm 한지에 먹 2022

전공이 다른 중진 작가 3인이 이 세상을 '상호관계성' 으로 구현했다. 서울 선아트스페이스는 2월 4일부터 14일까지 기획전 김태종 박경귀 지원진 3인展 '점점중중(點點重重)' 을 개최한다.

40여 년 동안 꾸준히 각자의 작품세계를 펼쳐온 3인은 6개월 동안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 우주, 자연, 인간, 관계를 화두로 불교의 중중무진(重重無盡) 개념과 양자물리학, 우주의 시원 등을 주제로 토론한 후 '점점중중(點點重重)' 이라는 주제를 도출하고 각자의 작품으로 구현했다. 전시의 주제인 '점점중중' 은 점, 입자, 관계, 거시세계, 미시세계, 불교사상과 양자물리학의 개념으로 중첩된 세상을 의미한다.

작가 3인이 구현해낸 작품들은 우주, 자연, 인간의 상호관계를 해석한 것으로, 인간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시세계와는 달리, 물질(존재의 근원)의 최소개념의 미시적 입자는 광활하고 무한한 진공의 우주 공간 안에서 중첩된 파동으로 존재하며, 그 파동의 형태가 관찰자의 간섭현상이나 임의의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 파동은 붕괴되어 입자라는 형태의 존재로 실존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간섭현상' 이나 '우연' 은 불교의 연기(緣起)-인연(因緣)의 개념과 상통하며 대칭을 이룬다. 우주와 자연은 그 자체의 이치로 존재 · 순환하며 스스로 특별한 의미와 가치를 내포하지 않지만 '나(自我)' 라는 존재는 시공이라는 거시세계 안에서 자아의 존재를 인식하며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한다. 여기서 작가 3인은 '관계' 에 주목하게 된다. 미시세계 양자중첩 상태의 일체성과 불교의 중중무진 일체사상, 즉 중첩된 두 개의 객체가 하나의 속성을 갖는 '불이(不二)' 의 의미를 발견했다.

△김태종(회화-영상설치 전공) 작가의 작업은 "물질과 존재의 근원은 '파동' 으로서 존재인가 '입자' 로서 존재인가"라는 자문으로 시작됐다. 인간의 지각으로는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도 있는 양자물리학(미시세계)과 우주공간(거시세계) 각각의 존재 원리 모순과 과학적 논리 충돌 현상 안에서 불확실하고 확률로서 존재하는 중첩된 파동(空)과 물질(mass)로서 입자의 실존적 존재의 개념과 의미로 서로 상호 대체 연결되어 해석되고 이해될 수 있음에 주목했고, 회화적 관점으로 점, 선, 면, 시공의 차원개념 안에서 '점' 으로부터 기원하는 존재의 사유를 2차원(평면) 작업으로 구현했다.

△박경귀(회화-불교회화 전공) 작가는 어머니와 그 몸속 태아와의 관계를 통해 불성을 추적하고, 티베트인의 '통렌' 수행법에 담긴 세계에 대한 보은의 가치관에 주목하여 작업했다.

통렌 수행은 호흡을 통해 이뤄지는데, 숨을 들이마실 때 타인의 고통을 자기 안으로 받아들이고, 숨을 내쉴 때는 나의 행복한 기운을 상대에게 보내는 수행이다. 티베트인은 세상 모든 만물을 자신들의 어머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보은의 대상으로 삼았다.

박 작가는 그들이 세상을 대하는 보은의 가치관을 중생이 갖는 불안과 공포를 해결할 방편이라고 보았다. 작품 '세상과 나' 는 세상과 자신의 관계를 모자(母子) 관계로 은유한 작품으로 세상 속에서 '나' 를 찾아가는 과정을 십우도와 같이 5폭으로 나누어 그린 연작 형식의 작품이다.

△지원진(회화-동양화 전공) 작가는 작품을 보는 관객에게 일정 수준의 자세를 요구한다. 즉, 작품의 최소한의 조형언어와 관객의 만남 관계를 우주 · 자연 · 관계의 상관관계 작용과 존재에 초점을 맞추어 재해석했다.

우선 지 작가는 자신의 그림이 자신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진 그림이길 원한다. 그만큼 간절히 자신을 지워야만 시작될 수 있는 이야기인 것이다.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과 관계, 우주를 이야기한다면 결국 자신의 이야기로 끝나고 말 것이라는 것이다. 자신을 지우려는 작업은 결국 '모순' 이 발생하겠지만 자신의 존재 한계를 인정하고 스스로 최소한의 이야기를 던지는 것으로 시작한다. 종이와 먹 그리고 붓, 간소한 재료를 응시하고 있다. 관객이 이 점의 형태를 관찰하거나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림이 관객을 바라보기를 바라는 것이다. 관객이 '관객' 이 아니라 '대상' 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갤러리 '선아트스페이스' 는 "이번 전시는 양자물리학, 불교사상 불이-연기론, 실존적 자아 개념 등을 모티브로 전공이 다른 작가들이 '상호관계성' 을 주제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재해석-재현해낸 흥미로운 전시가 될 것"이라고 했다. (02)733-0730.

통도사 매화불이 전하는 희망의 봄

김양수 개인전 '아 매화불이다'
통도사성보박물관 2월 1~24일
통도사 홍매화 등 30여점 전시



김양수 57022-24(195x396cm)

"봄이 저만큼 찬찬히 오겠다. / 영축산 품 안 봄기운 곧 닿겠다. / 통도사 뜨락엔 홍매화 피겠다. / 일휴의 매화도 덩달아 피겠다. / 인연 있는 이들은 부처를 보겠다."

한국화가 일휴 김양수가 2월 1일부터 24일까지 통도사성보박물관 2층 기획실에서 개인전 '아 매화불(梅花佛)이다' 를 개최한다.

자연의 풍경들을 선적인 화폭으로 옮겨온 김 화백이 이번에는 통도사 홍매화를 화폭에 옮겨 통도사에서 전시를 연다. 늘 한 발 앞서 봄소식을 전하는 통도사 홍매화를 올해는 더 빨리 만난다.

김 화백은 이번 전시에서 통도사 홍매화를 비롯해 고향 진도에 귀향하여 그린 400호 대작부터 10호 소품에 이르는 매화 그림 30여 점을 함께 선보인다.

김 화백의 이번 작품들은 매화의 상징적인 감성이나 형태의 심미를 초월해 깊은 울림을 추구한 그림으로, 그동안 김 화백이 보여 왔던 미학 위에 더해진 또 한 겹의 미학을 보여준다. 김 화백은 2008년 첫 시집 〈내 속 뜰에도 상사화가 피고 진다〉를 비롯해 2001년 〈고요를 본다〉, 2015년 〈함께 걸어요 그 꽃길〉 2017년 〈새벽별에게 꽃을 전하는 마음〉 등의 시화집을 낸 시인이다. 김 화백의 작품은 단순하게 보는 시각적 표현의 그림이 아닌, 소리가 들려오고 향기가 느껴지며 자연의 숨결이 만져지는 겹겹의 승화된 의식이 담겨있다.

황청원 시인은 '전시회에 보내는 마음 글' 에서 "뭇 인연들의 마음 귀의처인 통도사에서 매화그림전 연다는 일휴를 생각한다. 일휴는 화인인가 선인인가. 내가 본 일휴는 화인이며 선인이다. 일휴의 일상에 그림과 선이 공존한다. 그런 까닭에서일까. 일휴의 그림 속엔 선리(禪理)가 있다. 그 선리는 붓을 잡은 손에도 보인다. 붓이 지나간 자리에도 보인다. 종이에 남겨진 먹빛에도 보인다" 고 적고 있다.

김 화백은 신성한 자연과 생명에 녹아내린 정신성을 한 줄의 맑은 시처럼 화폭에 그려내는 화가로 잘 알려져 있다. 김 화백의 작품은 자연의 신성한 숨결을 시가 지닌 은유로 표현한다. 이는 감성의 교감을 통한 사유의 소통을 추구하려는 김 화백의 의식에서 완성된 미학이다. 절제된 수묵과 문장으로 선서화의 세계를 추구해온 김 화백의 붓을 또 한 번 볼 수 있다.

김양수 화백은 작가는 전남 진도에서 태어나 동국대학교 미술학부와 성신여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중국 중앙미술학교에서 벽화를 전공했다. 서울에서 활동하며 많은 해외 초대 전시로 분주하게 작업해오던 작가는 지난 2018년 고향 진도에 화실 적염산방(寂拈山房)을 지어 귀향했다. 한국에서 35회의 개인전과 다수의 초대전을 열었다. 신문과 잡지 등에 글과 그림을 다수 연재했다. 동국대 예술대학과 성신여대 겸임 교수를 지냈다. (055)384-0010

박재완 기자

대한불교 선밀종

종도를 위한 종단 | 수행을 위한 종단 | 더불어 가는 종단

대한불교 선밀종은 종단을 이끌어 나아갈
간부스님 및 종도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옵니다.

사암등록 및 안내

▣ 제출서류
·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주민등록등본 1통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판 사진 3매(장삼,가사)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종단사업 참여 안내

포교를 위한 종단사업을 추진하오니
운영(지분참여)에 관심있는 분은 참여바랍니다.

▣ 전자사업(전자뜸질기)
· 국내특허 : 10-2014-0143968 (전자뜸질기)
· 국내상표출원 : 4-2014-058697-9 (전자뜸질기)

뜸의 효과를 세계최초로 전자로 대체 개발한 임맥의 단전, 중완, 신궐, 양천추, 독맥의 명문, 현추, 양관, 양신유의 뜸질

문의전화 ▶ 010-3134-8484

대한불교 선밀종 총본산 관정사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로 449 www.sunmiljong.or.kr 총무원 T. 053)854-0803 / F. 053)854-0804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 환인동 요가마을

30년 전통 민속죽염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250g 9,000원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